* 3 회 차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일일은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 홀로 초당에서 수를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 매화 가지에 앉아 울거늘, 낭자가 왈,

[2]"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3]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홀연 졸더니, 그 새가 낭자에게 왈,

[4]"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5]하거늘, 낭자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되, 주춧돌과 기둥은 만호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지붕은 유리로 이었는지라. [6]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보지 못할네라. 산호로 만든 현판에 금으로 '**요지**'라 쓰여 있었으니, 서왕모의 집일너라.

[7]너무 으리으리하여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주저하더니,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8]청운(靑雲)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육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 석가여래 오신다 하고 제천 제불과 삼태 칠성과 관음 나한과 보살이 시위하여 오되, [9]사방에서 풍류 소리 진동하니, 그 위엄 있고 엄숙한 행차와 거동이 일대 장관이더라. [10]이윽고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백옥교자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 쥐고 단정히 앉아 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하여 오더니, 이는 ㉠ 월궁항아의 행차러라. [11]항아가 숙향을 보고 왈,

[12]"반갑다,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나를 좇아 들어가 요지의 경치나 보고 가거라."

[13]하거늘,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 형상과 으리으리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14]각양각색의 풍류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뵈오니,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

[15]"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며, 소아를 만나 보았느냐?"

[16]그 선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17]항아가 옥황께 여쭈오되,

[18]"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하옵셔 복록*을 정하쇼서."

[19]상제 허락하셔서 여래에게 명하셔서 수명을 정하라 하시니, 여래 아뢰되,

[20]"일흔 살을 정하나이다."

[21]또 북두칠성에게 명하셔서 자손을 정하라 하시니, 칠성이 아뢰되,

[22]"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하나이다."

[23]또 남두칠성에게 명하셔서 복록을 정하라 하시니, 남두성이 아뢰되,

[24]"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게 정하나이다."

[25]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반도 두 개와 계화(桂花) 한 가지를 태을선군에게 주라 하시니, 소아가 상제 명을 받들어 한 손에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 들고, 한 손에 계화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을선군에게 주니, [26]그 선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보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떨어지거늘, [27]소아가 쥐고자 할 차에 벌써 그 선관이 쥐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 들어와 낭자를 깨워 왈,

[28]"봄날이 곤하거니와 무슨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

[29]하며 깨우거늘, 소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

(중략)

[30]3월 보름에 대성사에 올라가니, 몸이 곤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하여 잠깐 잠을 들었더니, 꿈에 부처 와 이르되,

[31]"오늘 서왕모가 요지에서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좇아 구경이나 하자꾸나."

[32]하거늘, 이선이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며, 기이한 화각(畫閣)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향내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왈,

[33]"북쪽 옥륜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시고, 그 뒤에는 삼태칠성이 모든 별을 거느렸고, 동편 백옥교에는 석가여래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차례로 앉아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그대는 내 뒤를 좇아서 상제를 뵈온 후에 차례로 좌우에 있는 선관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게."

[34]이선 왈,

[35]"너무 으리으리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할까 하나이다."

[36]부처 웃고 소매 안에서 ⓒ대추 같은 과일을 주며 왈,

[37]"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38]하거늘, 선이 받아먹으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 같아, 모든 선관이 다 전의 친하던 벗일네라. [39]새로이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부처께 사례하니, 부처 먼저 들어가거늘, 선이 뒤를 따라 들어가 상제께 큰절을 하고 모든 선관들에게 차례로 인사하니, 다 반겨하더라. [40]상제 전교*하시되,

[41]"태을아, 인간 재미 어떠하더냐? 네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42]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더니, 상제 한 선녀를 명하셔서 반도 두 개와 계화 한 가지를 바치라 하시니, 이선이 땅에 엎드려 두 손으로 받으며 선녀를 얼핏 보니, [43]선녀 부끄러워 몸을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환의 진주가 계화에 걸려 선의 앞에 떨어지거늘, 가만히 한 손으로 쥐고 다시 희롱코자 하더니, 대성사 중들이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종을 치니, [44]그 소리에 놀라 깸에 요지의 풍경이 눈에 선하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며, 손에 진주가 분명 쥐어져 있거늘, [45]너무 신기하여 즉시 글을 지어

MEMO

MEMO

꿈속의 일을 기록하고, 부처께 하직한 후 집에 돌아오니라. [46]이후로는 부귀공명에 뜻이 없고, 오로지 소아만 생각하며 지내더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 복록 : 복되고 영화로운 삶.
* 전교 : 임금의 명령을 내림.

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이선은 요지에 다녀온 후 숙향을 보고 싶어 했다.
②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다.
③ 숙향은 청조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며 슬픔을 느꼈다.
④ 숙향과 이선은 모두 서왕모 집의 규모에 압도됨을 느꼈다.
⑤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왕모의 잔치에 참석했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숙향이 겪은 과거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② 숙향이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행에 대해 알고 있다.
③ 숙향이 이선과 맺게 될 인연을 상제에게 설명하고 있다.
④ 숙향이 요지에서 겪을 일을 숙향에게 미리 알려 주고 있다.
⑤ 숙향이 태을선군을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가 되고 있다.
② ⓑ는 인물이 상대 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③ ⓒ는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④ ⓐ, ⓑ는 모두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⑤ ⓑ, ⓒ는 모두 인물이 상대 인물과의 인연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숙향전」은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담의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체험의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① 숙향이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 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군.

② 숙향과 이선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에 두 사람이 각자 잠드는 것을 서사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숙향과 이선의 환상 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군.

③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은 체험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군.

④ '상제 그 선관에게 이르시되'라고 서술한 것을 '상제 전교하시되'로 서술함으로써 숙향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과 이선이 당사자로서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군.

⑤ 숙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숙향의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환상 체험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군.

MEMO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책장의 가장 밝은 곳에 꽂혀 있던 아르판의 책을 꺼내어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처럼 암담한 시기를 지나는 중이었다. [2]내게도 뛰어난 이야기를 알아볼 눈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3]㉠ 요리는 못해도 미각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었다.

[4]그 증명에서 시작해, 나 자신에 대한 신뢰부터 되찾고 싶었다. [5]나는 와카어의 지식을 되짚어가며 정성껏 번역했다. [6]극심한 가난과 조울증의 고통 속에서 그 작업은 한 해 넘게 계속되었다.

[7]자세를 똑바로 잡았다. [8]등을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꼬았던 다리를 펴내렸다. [9]감정을 최대한 지운 목소리로 말했다.

[10]"아르판, 지금 이 노래 들리지요?"

[11]이번엔 여자 가수가 떼로 출동해 저를 떠나지 말라며 악을 쓰고 있었다. [12]아르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13]고개를 끄덕이거나 젓지도 않았다. [14]그건 내 예상과 아주 많이 다른 것이었다. [15]정적이 흘렀다. [16]견디기 힘들었다. [17]나는 차라리 그가 벌떡 일어나 화를 내기를, 울부짖거나 원망하기를, 혹은 주먹을 들어 ㉡ 내 곪은 영혼에 매질을 해 주기를 바랐다. [18]하지만 그는 가만히 나를 노려보기만 했다. [19]아니, 소름끼치는 눈으로 찬찬히 관찰했다. [20]표정을 읽어낼 수 없어 답답했다. [21]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22]"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입니다. [23]그런데 사실 이건 번안곡이에요. [24]원래는 삼사 년 전에 일본, 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25]아무튼,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26]그러나 알고 보면 일본 것도 아니지요. [27]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던 시절에 일본이 흠모하던 영국의 동요가 그 뿌리니까요. [28]하지만 영국 이전에는 네덜란드의 서민 음악이었고, 그 음악은 17세기 중국 광동 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전통 리듬에 뿌리를 두고 있답니다. [29]자, 그렇다면 중국 광동 지방의 어느 중국인이 이 노래의 원작자일까요?"

[30]아르판은 대답하지 않았다. [31]속내를 짐작할 수 없는 시커먼 눈동자가 무서웠다. [32]답답했다. [33]나는 부탁하고 싶었다. [34]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35]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36]다르게 말했다. [37]그렇지 않아요, 하고 나는 쫓기듯 말했다.

[38]"그렇지 않아요. [39]비록 광동의 리듬을 차용했지만, 이 곡에는 자신이 거쳐 온 네덜란드나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의 고유한 향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40]게다가 알려진 게 그 정도라 그렇지,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전혀 다른 지역으로까지 소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41]그러나 이 복잡한 노래의 마디마디에서 원작자를 찾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옳지도 않습니다. [42]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43]이 음악은 칠음계를 사용하고 있군요. [44]또 리듬의 중심엔 일렉트릭 베이스가 있네요. [45]그렇다면 칠음계의 수학적 원리를 고안한 피타고라스, 베이스 기타의 발명자인 폴 툿말크를

불러다 이 음악에 관한 창조의 권리를 부여해야 할까요? [46]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47]피타고라스가 숫자를 발명했나요? [48]툿말크가 소리를 발명했어요? [49]그렇지 않아요. [50]인간의 예술은 단 한 번도 순수했던 적이 없습니다. [51]우리가 벌이는 모든 창조는 기존의 견해에 대한 각주와 수정을 통해 나옵니다. [52]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53]나는 아르판이 모를 게 분명한 온갖 장르와 지역과 사람의 이름을 난잡하게 혼용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내 논리의 허점을 감추려 노력했다. [54]높이 쌓는 행위가 문화라면 아르판이 써 나간 건 예술이다. [55]하지만 나는 그 차이를 일부러 무시했다. [56]무시하고, 어떻게든 동일시하기 위해 애썼다.

(중략)

[57]나는 거의 화를 내고 있었다. [58]바락바락 대드는 심정으로 말했다.

[59]"네, 나는 당신 것을 훔쳤습니다. [60]하지만 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덧칠함으로써 더욱 멋지게 살려냈습니다. [61]내가 훔치지 않았더라도 당신 이야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62]세상에 드러났을까요? [63]아닙니다. [64]내가 훔치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는 머지않아 당신과 함께 영원히 묻혀 버릴 겁니다. [65]그렇다면 어느 쪽입니까? [66]불멸하는 것과 영원히 묻히는 것, 어느 쪽을 원합니까? [67]당신은 당신이 창조해 낸 인물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필경 수 년 내에 쓰러져 묻힐 ㉡저 갸우뚱한 오두막에서의 명예를 사랑합니까?"

[68]옳지 않은 것을 설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69]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70]그에게 윽박지른 논리는 ㉢내가 발명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 [71]말을 끝낸 뒤, 묘하게 고정되어 있는 아르판의 까만 눈을 피해 곱창볶음만 바라보았다. [72]부끄럽다기보다는 겁이 났다. [73]와카의 땅에서라면 이런 짓을 한 나는 그의 거친 손에 붙잡혀 죽었을지 모른다. [74]그리하여 ㉣취향도 뭣도 아닌 대중성으로 요란히 장식된 한국산 기성복과 함께 화장터에서 불살라졌을지 모른다. [75]하지만 이곳은 문명 세계고 나는 이곳의 주민이어서, 어느 순간 아르판의 눈빛이 맥없이 풀리리라는 것을, 제 피조물과 이야기를 영원히 살리는 쪽으로 동의하리라는 것을, 내가 이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76]과연 아르판이 눈을 몇 번 깜박이더니, 그윽하게 감는 것이었다. [77]스피커에서는 떠나지 말라며 악을 쓰는 목소리가 쉬지 않고 흘러나왔다. [78]나는 차라리 모든 것이 떠나가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79]말없는 아르판도, 나를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해 준 저 책도, 불멸을 향한 아찔한 기만도, 저주받을 욕망과 열정도, 죄의식에 억눌려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나날도 모두, 모두.

[80]조금 지나 아르판이 눈을 떴다. [81]맑고 굵은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빛이 어려 있었다. [82]잠시 나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다. [83]일어나고 일어났다. [84]다 일어났다고 생각한 뒤에도 한참을 더 일어났다. [85]고급 승용차의 자동 안테나처럼 위로 쭉쭉 올라갔다. [86]그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갸우뚱하게 서 있지 않았다. [87]엄청난 신장을 과시하듯, 자신이 얼마나 더

MEMO

MEMO

커질 수 있는지 아냐고 묻는 듯 똑바로 기립했다. [88]그 상태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89]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90]"이만 돌아가 쉬어야겠군요. [91]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2]그렇게 말하는 아르판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분노나 절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93]아니, 겉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정말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94]뜻밖의 반응에 당황한 나는 무릎으로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95]어정쩡하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 박형서, 「아르판」-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가 인물 자신의 시각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② 현실로부터 소외된 인물을 통해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배경 공간을 객관적이고도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④ 인물의 성격 변화를 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⑤ 사건들을 원래 발생 순서와 다르게 제시하여 사건들 간의 인과성을 드러내고 있다.

6 **㉠~㉤의 문맥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창작 능력은 없어도 좋은 작품을 판별하는 감식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에 타협하는 부도덕을 의미한다.
③ ㉢은 훌륭하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④ ㉣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애써 만들어낸 궤변을 뜻한다.
⑤ ㉤은 대중이 애호하는 것들로 구성되었지만 실상 별 가치가 없는 상품을 뜻한다.

7 **'나'와 '아르판'의 대화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와 아르판이 만날 때 들리는 음악은 아르판이 '나'의 논리에 승복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② '나'가 아르판의 반응에 계속 신경 쓰는 것은 실상 자신이 먼저 괴로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③ '나'를 향한 아르판의 시선 변화는 그가 사태를 관찰하고 생각하며 결심하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④ '나'는 아르판이 자신의 고향이 아닌 한국에서는 '나'의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⑤ '나'에게 아르판이 일어나는 동작이 길고 크게 보인 것은 불안과 자책을 불러일으킨 그에게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8 **'나'가 자신의 행위를 기만으로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문화권 예술에 대한 표절은 자기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② 문화 도입 과정에서 생기는 창조적 요소가 새로운 예술의 원천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③ 예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에 고유성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일반적인 문화와 달리 예술은 창조성을 고유한 본질로 삼는다는 것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⑤ 외견상 달리 보이는 작품도 실제로는 기원이 동일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MEMO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산과 들이
[2]늙은 풍경에서 **앙상한 계절**을 시름할 때
[3]나는 **흙을 뚜지고 들어**왔다
[4]**차군 달빛**을 피해
[5]**둥글소**의 앞발을 피해
[6]나는 깊이 ㉠땅속으로 들어왔다

[7]멀어진 태양은
[8]아직 꺼머첩첩한 의혹의 길을 더듬고
[9]지금 **태풍이 미쳐 날**뛴다
[10]**얼어빠진 혼백**들이 지온*을 불러 곡성이 높다
[11]그러나 나는
[12]내 **자신의 체온에 실망**한 적이 없다

[13]**온갖 어둠과**의 **접촉**에서도
[14]생명은 빛을 더불어 사색이 너그럽고
[15]갖은 학대를 체험한 나는
[16]**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리라
[17]**풀풀의 물색**으로 평화의 의장도 꾸민다

[18]**얼음 풀린**
[19]냇가에 버들이 휘늘어지고
[20]어린 종다리 파아란 항공을 시험할 때면
[21]나는 봄볕 짜듯한 ㉡땅 우에 나서리라
[22]죽은 듯 눈감은 명상—
[23]나의 **동면은 위대한 약동**의 전제다

- 이용악, 「동면하는 곤충의 노래」 -

* 지온 : 땅의 온도.

(나)

[1]㉢느티나무 둥치에 **매미 허물**이 붙어 있다
[2]바람이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다
[3]나는 허물을 떼려고 손에 힘을 주었다
[4]순간 / [5]**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었다
[6]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허물의 발이 느티나무에 더 착 달라붙었다
[7]**허물**은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8]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9]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허물의 힘에 놀라

[10]슬며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았다
[11]**팔순의 어머니**가 무릎을 곧추세우고 **걸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다
[12]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다
[13]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아직 느티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까닭은
[14]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

- 정호승, 「허물」 -

9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가)와 달리 (나)는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나)와 달리 (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다양한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동면하는 곤충을 화자로 설정하여 일제 강점기의 혹독하고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동면하는 곤충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녀 능동적으로 추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그런데 이때 곤충이 떠올리는 봄에 대한 전망은 당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짐작하게 한다.

① '흙을 뚜지고 들어'가 '동면'하며 '위대한 약동'을 준비하는 곤충의 모습은 능동적인 주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둥글소'를 도와 '앙상한 계절'과 '차군 달빛'에 대항하는 곤충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혹독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태풍이 미쳐 날'뛰고 '혼백들'이 '얼어빠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온에 실망'하지 않는 곤충의 모습은 주체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④ '온갖 어둠과' '접촉'하면서도 '날카로운 무기를 장만'하는 곤충의 모습은 동면이라는 인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주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⑤ '풀풀의 물색'으로 단장하며 '얼음 풀린' 계절에 나설 것을 떠올리는 곤충의 모습은 당대 현실이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MEMO

MEMO

11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매미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질 수 있다는 화자의 추측에는 어머니 없이는 자식의 삶도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②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허물'의 이미지와 '걸레'가 된 '팔순의 어머니'의 이미지는 자식을 위한 헌신으로 남루해진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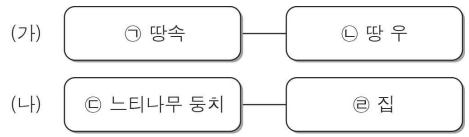
③ '몸에 힘'을 주는 허물을 떼려는 '힘'은 자식을 향한 끈질긴 모성을 의미하고 있다.

④ '어린 매미'가 벗어 놓은 '허물'이 어린 매미를 낳은 어머니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는 점에서 화자는 매미의 허물과 자신의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있다.

12 **<보기>는 (가)와 (나)를 시상 전개에 따라 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① ㉠과 ㉢은 화자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미래의 공간이다.

② ㉡과 ㉣은 화자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이다.

③ ㉠은 화자의 행위에 담긴 의미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대상의 행위에 담긴 의미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④ ㉡은 삶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태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 머무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혐오하는 대상이 머무는 공간이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MEMO

(가)

[1]녜ᄂᆞᆫ 양쥬(楊州) ㅣ 소올히여
[2]디위예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3]ᄀᆡ국셩왕(開國聖王)이 셩ᄃᆡ(聖代)를 니르어샷다
[4]잣다온뎌* 당금졍(當今景) 잣다온더
[5]셩슈만년(聖壽萬年)ᄒᆞ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6]아으 다롱다리
[7]알픈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8]덕듕(德重)ᄒᆞ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셰(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 신도형승이샷다 :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잣다온뎌 : 도성답구나.
* 함락이샷다 : 함께 즐거워하도다.

(나)

[1]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凜然)한* 줄 반가온뎌**
[2]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3]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4]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5]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6]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제2수〉

[7]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8]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9]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10]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11]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러셰라**
[12]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 늠연한 : 위엄이 있고 당당한.
* 번폐하고 : 마다하고.
* 흔덕흔덕 : 흔들흔들.

(다)

[1]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멱을 감는 한 시간 남짓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2]멀리 오는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MEMO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3]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매,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연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4]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뜬 눈과 부르걷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5]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홀쭉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6]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7]한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퉁퉁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8]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궂고, 늠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중략)

[9]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았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10]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나는 신품이 아님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이 끄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11]하늘 모양으로 궁륭상(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12]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굉걸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13]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14]훤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15]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직인다 한다. [16]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둥실둥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 궁륭상 :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MEMO

14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의 '늠연한 줄 반가온뎌'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④ (나)의 '대숲이 푸르러셰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MEMO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녜ᄂᆞᆫ 양쥬ㅣ 쇼올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썽'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②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③ 'ᄀᆡ국셩왕이 셩ᄃᆡ를 니르어샷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④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 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⑤ '만셰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16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MEMO